

可但是世



漢拏曰那 제 9319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1년 3월 10일 수요일**(음력 1월 27일)

도정 제2공항 입장 침묵 속 결단 임박

道, 어제까지 "의견 제시 여부 결정된 것 없어" 국토부 "법적 구속력 없지만 지자체 입장 중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여론조사 결 과에 대해 제주도의 입장을 달라고 요구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 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 다. 그러는 사이 일부 정치권은 찬반 으로 나뉘어 자신들이 정한 입장대 로 의견을 제시하라며 도정을 압박 하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 부는 지난달 25일 공문을 보내 제2공 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도정 의 입장을 3월 10일까지 제출해달라 고 요구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여론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그대로 전달한 것에 그치자 국토부가 제주도 차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요청한 것이다.

그동안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2공 항 여론조사 결과는 참고용이고, 제2 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여론 조사 결과가 발 표된 이후부턴 말을 아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2공항에 대한 제 주도의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 와 의회가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뒤 갈등 유발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 의했기 때문에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선 도정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 라며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할 지 말 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결정된 것 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번 의견 제출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공항시설법 제4조에는 국토부장관 이 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 경할 때 제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해 관할 지방자치단 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나 와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현재는 행 정절차상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단 계가 아니어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수 있다.

국토부도 제주도를 상대로 한 의 했다.

견 제출 요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국토부 관 계자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 은 아니지만 정부로선 지자체의 입 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주도가 제 2공항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 도가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 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 해선 "현재로선 말할 단계가 아니다" 고 즉답을 피했다.

정치권도 도정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과 강연호·오영희·강충룡·김황국·이 경용 등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 과 주요 당직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 건설은 여전히 도민 다수가 염원하는 사업"이라며 "제주 도는 제2공항 정상 추진과 갈등 해 소 동시 진행을 국토부에 의견으로

반면 제주녹색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도정은 제2공항 반대라 는 도민의 위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즉각 반영하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할 것을 요구했다.

감귤 가장감귤 과장감귤

하루 두 개로 비타민충전! 행복충전!

사라라 주네서

"**감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등에서 열린'제주행복만감 222 페스티벌'소비촉진 및 사은행사 에서 강승표 농협제주지역본부장(왼쪽 두 번째부터).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 대정농협 이창철 조합장. 농협중앙회 유찬형 부회 장, 제주감귤연합회 김성범 회장, 금융노조 NH농협지부 김용택 노조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맛 좋은 제주 한라봉·천혜향 맛보세요" 제주농협, 14일까지 '제주행복만감 222 페스티벌'

미국산 오렌지의 무관세 수입철(3~8 월)을 맞아 제주산 한라봉·천혜향 등 만감류 소비 촉진을 위한 온 오프라 인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사)제주감귤연합회와 농협제주 지역본부는 9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 앙회 본관과 농협고양유통센터에서 '제주행복만감 222 페스티벌'소비 없다고 설명했다. 공항 기본계획은 촉진 사은행사를 진행, 농협 임직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수립할 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천혜향·한라 봉을 증정하며 맛좋은 품질을 홍보 왔다.

제주행복만감 222 페스티벌은 2월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달간 온ㆍ 오프라인에서 진행중이다. 수입산 오 렌지가 같은 시기에 출하되는 제주 산 만감류 가격 하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에 대응해 만감류 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시장 선점 을 위한 것으로, 농협하나로마트와 농협몰,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 다 양한 채널을 통한 판촉전이 진행돼

제주농협은 이번 페스티벌 기간

총 1500t(천혜향 1000t, 한라봉 500 t)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범 제주감귤연합회장은 "올해 제주산 만감류 가격은 농가들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범농협 차원의 대대적인 소비 촉진·홍보행사 지원 에 힘입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오렌지 무관세 수입시기에 열리는 만감류 판촉행사가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 기준 제주산 만감류의 도매시장 평균가격(누계평균)은 3kg 기준 한라봉 1만3600원, 천혜향이 1 만7800원으로 작년동기 대비 각각 34%, 25% 높게 거래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로지스틱스, 공동물류센터 위탁 운영 도. 편의 증진 물류비 절감 위해 서비스체계도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공동물류 센터 위탁 운영업체로 (주)제주로지 스틱스를 선정한 가운데 3월부터 본 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사업은 육 지부에 비해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중소기업의 물류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 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물류전 문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 운영하면 서 이용실적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0년 운영실적은 물동량(1만9835 PLT)이 전년대비 19.5% 늘었으며, 이용기업(147개소)도 전년대비 14.8 % 증가했다.

제주도는 올해 공동물류 이용기업 의 편의 도모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공동물류 이용서비스 체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영세 중소제조기업의 운송 편리성 증대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풀필먼트서비스 제공과 온라인 유통 이 가능한 도외 서브거점센터(경기 도 이천센터)가 새롭게 운영된다.

5월부터는 저온보관 상품의 안정 적 유통을 위해 저온시설을 갖춘 도 내 메인센터(오등동센터)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3.5t 소규모 운송 전담차량 2 대가 매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1 ~2PLT의 물류도 즉시 배송하는 체 계로 대폭 개선했다.

제주도는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업 실무회의체 (행정기관, 업무대행기관, 운영업체, 제주공동물류센터 이용기업협의회) 운영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물류 비 절감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대로기자

전자무역시스템 고도화 작업 완료

도, 유관기관별 수출지원 통합관리 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시스템의 보 안 취약성을 개선하고, 도내 수출기 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주전 자무역지원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했

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각 유관기관별로 제 공되고 있는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적용하고, 온 라인 시스템화를 통해 도내 수출업 체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제주도는 제주전자무역시스템 고 도화를 통해 사용기업의 편의성 확 보 등을 위한 사업신청 시스템 기능 을 전면 재구축했다.

사업신청시스템을 제주전자무역지원 시스템에 일원화시킴으로써 제주 수 출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심 사업을 등록하면 온라인쇼핑몰 소통 창구도 마련했다. 장바구니 기능처럼 열람이 가능하며,

단계별·유형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 기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더불어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상태 및 승인알림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 한 문자 알림서비스 기능을 통해 사 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 라 현지 사업 참가가 불가한 기업들 을 위해 바이어와 도내 수출업체의 상시 매칭 플랫폼을 구축했다.

아울러 도내 수출상품 정보를 데 이터베이스화해 전자카탈로그를 제 작하고, 시스템 내 무역전문가 실시 간 Q&A 창구를 운영한다. 영어, 중 국어, 일어 전자카탈로그를 제작해 기존 유관기관별로 분리돼 있던 바이어들에게 제주상품을 효과적으 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판매의 편의성을 확대한다.

무역전문가를 통한 수출 관련 실 시간 질의응답, 바이어 대응 및 교신 또한 회원 가입한 수출업체가 관 을 지원하고, FAQ 게시판 운영 등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